

이재명 “4대 대전환으로 세계 5대 경제강국 도약”

신경제 비전 ‘이재노믹스’ 선언 과학기술부총리제 도입 등 제시 전환적 공정성장 경제 구상 공개 내일 산업분야 세부 공약 발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11일 ‘이재명 정부’ 경제 공약을 집대성한 ‘신경제 비전’을 선포했다.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혔던 ‘5·5·5 공약’ (국력 세계 5위(G5)·국민소득 5만 달러·주가 5천 시대)의 구체적 로드맵이자, 이른바 ‘이재노믹스’ (이재명+이코노믹스)의 완성을 선언했다.

신경제 비전의 핵심은 산업·국토·과학기술·교육 등 이른바 ‘4대 대전환’을 통한 세계 5강의 경제대국 진입이다. 이 후보는 비전 발표문에서 “지금 우리는 에너지 전환, 디지털 전환, 그리고 최근에는 코로나 팬데믹까지 동시에 맞으면서 역사적인 대전환의 시대를 살고 있다. 바로 지금이 대전환의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또 4대 대전환만으로는 ‘이재명 신경제’를 완성할 수 없다며 2대 개혁과제(공공개혁·금융개혁)도 제시했다. ‘2대 개혁’에는 대선 경선 때부터 주창해 온 과학기술혁신부총리제 도입, 기획·예산 기능 개편, 주가 조작 ‘월스트라이크 아웃제’ 등이 고루 담겼다.

이 후보는 발표식 후 ‘5·5·5 공약’ 달성 시점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임기 내 도달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초장기적으로 지향할 목표는 아니다”라며 “최단기간에 도달하겠다는 비전이지 목표다. 이를 위해 국가의 대대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선대위는 지난해 11월 출범하자마자 이른바 이재노믹스 구상을 다듬어 왔다. 당초 지난 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총론을 밝힌 데 이어 경제분야에 대한 각론을 지난 6일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일정을 조정하고 세부 공약을 보강했다.

‘전환적 공정성장’을 골자로 한 신경제 구상을 전면 공개한 만큼 이를 토대로 이 후보는 더 본격적인 ‘경제 대통령’ 행보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관련, 이 후보는 13일에는 산업분야에 대한 세부 공약 등도 발표할 예정이다.

이 후보의 경제 정책 발표 드라이브는 자신만의 ‘성장 브랜드’를 확실히 부각하며 1월부터는 중·보수로의 외연 확장에 한층 박차를 가하겠다는 전략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설 연휴(1월 말~2월 초)를 전후해 지지율 40%대로 올라서며 안정적인 선두를 유지하겠다는 목표와도 연결돼 있다.

선대위 관계자는 “재계 간담회를 포함해서 대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간담회까지 이번 달은 경제 이슈 관련 일정을 집중적으로 소화할 예정”이라며 “특히 ‘경제대통령’은 윤석열 후보와 가장 큰 차별화가 가능한 지점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차기 정부가 ‘이재명의 메타(Meta) 정부’로 선언하며, 디지털 혁신 분야에 대한 정책 차별화도 부각할 계획이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선대위 산하 디지털·혁신 대전환위원회 정책 1호 발표식에도 직접 참석해 이런 내용의 ‘디지털 정부’ 구상을 밝혔다. ‘이재명의 메타 정부’란 정부와 국민이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체제를 일컫는다. 또한 ‘휴먼캐피털 제도’ 도입 계획도 공개했다. 이 제도는 디지털 인재 교육비를 정부가 먼저 지원하고 취직 후 일부 상환받는 방식의 지원 프로그램이다.

오영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재노믹스(이재명+이코노믹스)로 명명한 ‘신경제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2030 지지율, 이재명 27.7%·안철수 20.2%·윤석열 16.2% 한국리서치 조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2030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다른 주요 경쟁 후보들을 오차범위 밖의 격차로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1일 나왔다.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7~9일 전국 만 18~39세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 포인트), 이 후보의 지지율은 27.7%를 기록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20.2%,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16.2%,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5.5%로 뒤를 이었다.

이번 조사를 지난 달 20~22일 결과와 비교하면, 안 후보는 11.6%포인트 상승한 반면 윤 후보는 7.8%포인트 하락했다. 이 후보는 1.7%포인트 올랐다.

‘대선 후보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요인’에 대한 질문에는 가장 많은 41.1%가 정책·공약을 선택했다. 능력(29.6%), 도덕성(16.8%), 소속 정당(7.6%) 등의 순이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 “대선 앞둔 시기, 북 미사일 발사 우려”

NSC 긴급회의 ‘강한 유감’ 표명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북한이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쏘아 올린 것과 관련, “대선을 앞둔 시기에 북한이 연속해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한 것에 대해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개최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 결과를 보고받은 뒤 이같이 언급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앞으로 더 이상 남북관계가 긴장되지 않고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각 부처에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북한은 이날 오전 자강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 1발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에 이번 발사체의 비행거리가 700km 이상, 최대고도는 약 60km, 최대속도는 마하 10 내외라며 지난 5일 발사한 탄도미사일보다 진전된 것으로 평가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이날 오전 8시50분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열고 북한이 이날 탄도미사일

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쏘아 올린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고 청와대가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NSC가 ‘강한 유감’이라는 입장을 표한 것은 지난 5일 북한이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을 때와 비교해 수위가 올라간 것이다. NSC는 당시에는 ‘유감’이라는 표현 없이 우려한다는 입장만을 내놨다. 이는 지난 5일에 비해 표현 수위를 다소 높여 상황을 엄중히 보고 있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판단한 셈이다.

상임위원들은 또 한미 간 긴밀한 공조 하에 발사체의 세부 제원을 정밀 분석하는 동시에 북한의 관련 후속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대응 조치를 강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북한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바라는 국제사회의 기대에 부응해 대화 재개와 협력에 조속히 호응할 것을 촉구했다.

이는 연초 한반도 주변의 긴장감이 높아지는 모습이지만, 이런 안보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이라도 남북대화 재개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정부의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지방선거 5개월 앞 ...광주 5개 구청장 선거 요동

김삼호 광산구청장 불출마

무주공산 민주당 경선 경쟁 치열

서구 등 4개 구청장 물갈이 주목

지방선거가 5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광주 지역 5개 구청장 선거에 새로운 변수들이 속속 등장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벌써부터 선거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다.

11일 광주지역 정가에 따르면 최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함소심에게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은 김삼호 광주 광산구청장이 오는 6월 지방선거에 불출마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청장의 불출마는 차기 광산구청장 선거에서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현직이 출마를 하지 않는 ‘무주공산’ 선거구가 되면서 민주당 내 치열한 경선 경쟁이 예상된다. 현재 광산구청장 민주당 경선 후보로는 김학

실 광주시의원과 박병규 전 광주시 경제부시장, 윤봉근 전 광주시의회 의장, 최치현 전 국가보훈처 정책보좌관 등이 거론되고 있다. 여기에 최근 윤난실 대통령비서실 제도개혁비서관의 출마설이 나오고 있다. 윤 비서관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김 청장에게 경선에서 패했다.

이런 가운데 현직인 김 청장이 어떤 후보의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경선 판은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 지역 정치권의 분석이다. 특히 민주당 광주시당이 지방의원들에 대한 공천 과정에 여성·청년 비율을 높인 만큼 광주 5개 구청장 선거에서도 여성 경쟁선거구 지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향후 광산구청장 경선에 지역 정치권의 이목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광주 서구청장 선거도 벌써부터 가열되고 있다. 현직인 서대석 청장이 지난해 7월 금품수용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의 형을 확정받으면서 향후 서 청장의 행보도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현재로서는 출마 가능성이 접혀지지

만, 민주당 내 현역 자치단체장 평가와 향후 공천심사위원회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출마 예정자들이 서 청장의 행보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이처럼 현직의 입지가 흔들리고 있는 서구와 광산구청장 선거판에서는 출마 예정자들이 출판기념회를 여는 등 경선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광산에서는 박병규 전 광주시 경제부시장이 다음 달 5일 광산문화예술회관에서 출판기념회를 열고, 최치현 전 문재인 정부 청와대 행정관은 지난 달 4일 남부대학교에서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서구청장 선거를 준비중인 김이강 전 광주시 대변인은 오는 15일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는 등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현직 구청장의 불출마는 선거에 도전하는 출마 예정자들에게는 좋은 기회지만, 불출마를 선언한 현직 청장의 입김이 경선에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67년
1954~2021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Passion Vision Truth

열정, 꿈, 진리로 흥망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2022학년도 광신대학교 학부 신·편입생모집

학부 정시모집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계열	모집단위	모집인원	
		정시	정원외
인문사회	신학과	31	
	한국어교육학과	2	
	복지상담융합학부	19	
사범	유아교육과	6	
	총계	70	

※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 한국어교육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 복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학부 편입모집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계열	모집학과	모집인원		
		정원내	정원외	
		일반편입(3학년)	학사편입(3학년)	우체원고시 양성 관련학과 전문학사취득 소지자 편입학(3학년)
인문	신학과	○○	○	
	한국어교육학과	○		
사회	복지상담융합학부	○○	○	
사범	유아교육과	○		○
	음악학부	○○		

▶ 전형일정

- 원서접수: 2022. 1. 10(월) ~ 1. 21(금)
- 전형일: 2022. 1. 25(화)

▶ 전형일정

- 원서접수: 2021. 12. 30(목) ~ 2022. 1. 3(월)
- 전형일: 2022. 1. 10(월)

입학문의 ▶ 학부 062) 605-1114 / 대학원 062) 605-1115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백제로 36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